

꼭 막힌 '패스트트랙' 협상

공수처 설치 놓고 민주 vs 한국당·바른미래 찬반 팽팽 선거법엔 "연동형 비례제 도입" vs "비례 없애자" 충돌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면 승부에 들어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며 정국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31일 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신설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검찰 특권을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별다른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석·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당론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맞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25개는 지역구, 75개는 연동형 비

례대표로 하면서 300명은 절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당론으로, 그 원칙을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내가 짝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몸치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면서 "민심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폐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수의 방안을 놓고 자유투표를 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중재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어려우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지역구 축소 규모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협상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모이는 '3+3' 회동을 열었으나 '탐색전' 수준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 합의의 처리할지와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각 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도 조선인 강제 동원 사진 원본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지난 31일 1940년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노무자원 조사'에 관한 건이란 제목의 기록을 원본과 고 김광렬 선생이 2017년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문서와 사진, 도면 등 총 2,337권 중 일부기록의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은 가이시마 오노우라 7경(노천갱)에서 작업 중인 조선인 갱부의 사진. /연합뉴스

與 '일하는 국회 만들기' 법안 발의 봇물

회의 10% 이상 불참시 출석 정치·윤리위 상설화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소속인 김영철 의원은 지난 31일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총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가장 30일까지 회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고 회의일수의 20% 이상 불참시 60일 이하의 출석정

지, 30% 이상 불참시 60일 초과 출석정지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포함한다.

특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52조 2에 담긴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골자다.

행행 조항은 국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 숙려기간 뒤 3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됐다.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상정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도록 했고 상정 뒤 30일이 지나면 소위에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됐다. 아울러 안건을 회부 순으로 심사되도록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윤리위원

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별위원회'인 윤리위를 상설위원회로 바꾸고, 윤리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 외에도 특위는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 개최를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한 기간 내에 윤리위를 열지 않으면 해당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특위는 의원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20대 국회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입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아베 친서에 만남 희망 피력"

강경화 장관 외통위서 밝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한 친서에서 정상 간 대화는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어려운 현안이 극복돼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전한 문 대통령의 친서에서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 총리가 일일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오셨다"며 "한일관계를 양국이 중

시하고 있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끌어내셨다는 데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과 관련해서는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점예한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에 관한 양국 간 간극이 의미 있게 좁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다음 달 23일 종료로 염두에 둔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재고하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심상정 "의원 특권 내려놓기 동참을"

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의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결정에 대한 비판에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즉비 소리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여야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의

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보좌인력풀 제도 도입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혁 법안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8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31749802 point

877814000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